

## 한국교회, 가능한가? 하우어워스의 응용\*

문시영 (남서울대)

### I. 들어가는 말

### II. '교회됨의 윤리', 한국적 읽기

1. '교회됨의 윤리', 맹목적 현실긍정인가?
2. 한국에서의 교회됨, 가능한가?

### III. 나오는 말

---

\* 이 글은 2015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NICE)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가 주최한 공동학술대회(2014.11.8.)의 기초발제문, '교회됨을 통한 교회개혁의 윤리와 실천과제'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 ABSTRACT •

---

## Hauerwas on Being Church: Korean Reading

Moon, Si-Young

There are so many cynical views on ‘ecclesial ethics’ or ‘ethics of being church’ of Stanley Hauerwas. Especially two sorts of critic are remarkable: The theological critic is ‘sectarian’ or ‘autistic’ element of ecclesial ethics. And the practical cynicism is an ‘anti-reformation’ nature implied in the ethics of being church. In other to overcome these, This paper seeks for Korean reading on the ecclesial ethics of Hauerwas as follows;

1) The balanced reading between critics and merits of the ecclesial ethic. In fact, the ‘sectarian withdrawal’ is one of the problematic debates. But there are so many merits in ecclesial ethics. For example, Hauerwas highlights that sanctification must be understood in ecclesial context.

2) The Korean reflection on being church: Hauerwas urges Christian moral ideal is not Kantian project but being Christian as the witness of Jesus narrative. In this context, Korea church has some tradition of virtue. But, it needs to identify the sort of narrative which church should realize is not Asian tradition but Jesus narrative. In other words, Korea church’s task for reformation is realizing the ethics of being church and being Christian according to Jesus narrative.

Of course, there are some shortages in the ethics of being church in reformation of Korea church. For example, the privatization of faith have to be overcome through concerning the public theology of M. Stackhouse.

**Key words:** Ecclesial Ethics, Being Church, Sanctification, Jesus Narrative, Stanley Hauerwas, Korea church.

---

## I. 들어가는 말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듯이, 한국교회는 윤리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교회비판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쏟아지는 시민적 비난은 교회를 부도덕하고 희망이 없는 집단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스스로 윤리적 위기를 말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문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교회, 이렇게 주저앉는 것일까?

이 글은 한국교회가 윤리적 성숙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하나의 제안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하나는 ‘한국교회’라는 표현에 관한 것으로서, 교회가 처한 오늘의 윤리적 정황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다.<sup>1)</sup> 다른 하나는 ‘덕 윤리’에 대한 것으로서, 기독교 덕 윤리와 기독교공동체주의(Christian Communitarianism)를 표방하는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교회됨(being church)에 대한 ‘냉소’의 문제이다.<sup>2)</sup>

- 
- 1) ‘한국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 몇 가지 반응이 있을 듯하다. ①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반응, 즉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반응, ②대표성이 없다는 반응, 즉 한국교회에 대해 말하는 당사자는 과연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 그리고 ③냉소 혹은 무관심이다. 솔직히, 필자의 능력으로는 어느 것도 극복할 수 없음을 자인한다. 다만, 시민사회로부터 ‘윤리부재’에 대해 소환을 받고 있는 ‘한국’의 정황에 집중하고자 한다.
  - 2) ‘교회됨’이란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를 지칭한다. 그의 윤리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강한 탓에, 필자에게는 부담감이 크다. 예를 들어, 필자가 어느 모임에서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관해 발표했을 때, ‘코스보에서 인종청소를 비롯하여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판국에, 한가롭게 교회됨이나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라는 혹평을 듣고, 당혹스러웠다. 하우어워스가 메노나이트의 영향을 받은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기는 하우어워스(와 그를 다루는 필자)에 대한 냉소였던 듯하다. 이 글 역시 필자의 표현능력부족을 자인하는 것이 되겠지만, 학술적 모색으로 발전시켜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하나로 엮어서, ‘한국에서의 교회됨’(being Korea church)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에서의 교회됨은 한국 그리스도인의 몫’<sup>3)</sup>이라는 하우어워스의 주장에 비판적으로 동의하면서 ‘교회됨의 윤리’를 ‘via positiva’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II. ‘교회됨의 윤리’, 한국적 읽기

### 1. ‘교회됨의 윤리’, 맹목적 현실긍정인가?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 혹은 교회됨의 윤리는 ‘독특하면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입장이다. 어느 한 편으로부터도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모두로부터 논박을 당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에 예수 내러티브를 복권시켰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성경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자체는 의의가 있으나 성경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곤 한다.

예를 들어, 하우어워스의 듀크대학 재직 당시,<sup>4)</sup> 그의 동료였던 신약학자 헤이즈(Richard Hayze)는 하우어워스가 성경에 관심하는 것 자체에 우호적이면서도 하우어워스에게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본문에 대한 광범위한 암시만 있을 뿐 구체적 석의가 없고, 성경인용이 산발적이고 단편적이며, 하우어워스 자신이 설정한 기준이라 할 신실한 교회가 아니면 성경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sup>5)</sup> 이처럼 윤리학에서

3) Stanley Hauerwas, 문시영 역, 『교회됨』 (북 코리아, 2010), 9. (\*이 부분은 한국어판 서문이다.)

4) 하우어워스의 Duke University 은퇴를 기념하는 모임(2013.11.1.)의 학술발표 자료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Charles M. Collier, ed., *The Difference Christ Makes: Celebrating the Life, Work, and Friendship of Stanley Hauerwas* (Eugene: CASCADE books, 2015). 은퇴 후, 하우어워스는 영국 스코틀랜드 University of Aberdeen에서 기독교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만 아니라 다른 분과학문에서까지 비판받는 하우어워스를 옹호할 ‘마음을 먹는다면’, 그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현명할 듯싶다.

특히, 교회됨의 윤리에 대한 한국신학계의 반응은 매우 비판적이다. 아 니, 냉소적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교회됨’으로는 교회의 윤리부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듯싶다. 시민사회에서 교회가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도 더욱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우어워스에 관한 냉소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이론적 혹은 신학적 냉소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적 혹은 현실적 냉소이다.

먼저, 신학적 냉소는 하우어워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소종파적 퇴거’의 위험에 대한 지적 내지는 ‘자폐적 교회관’의 문제로 대변된다. 이 부분은 하우어워스 자신이 소종파 비판에 개의치 않겠다고 말하는 ‘뻔뻔스러움’ 혹은 ‘확신’의 문제와 오버랩되어 여전히 논란 중이다. 이러한 냉소는 하우어워스의 윤리를 ‘전혀 새로운 것 없는 이야기’로 몰아세우는 경향으로 이어지곤 한다. 특히, 칼뱅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한국적 맥락에서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는 칼뱅의 관점에 한참 미달하는 ‘허점투성이’로 내몰리기 쉽다. 교회개혁에 대해서는 칼뱅이 이미 충분히 다루었으며, 하우어워스는 칼뱅의 교훈에도 충실하지 못한 채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식의 냉소들이 그렇다.

다른 하나, 실천적 냉소는 매우 설득력이 커 보인다. 우선, 하우어워스의 접근법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냉소가 있다.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교회를 두고, ‘지구상에 그런 교회는 없다’고 냉소하는 경우도 있으며,<sup>5)</sup>

5) Richard Hays, 유승원 역, 『신약의 윤리적 비전』 (IVP, 2002), 394~413. \*솔직히, 헤이즈의 비판은 옳으면서도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인다. 윤리학자가 성경본문을 다루는 것은 신약학자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것만큼의 심층연구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하우어워스에게 가혹해 보인다. 헤이즈 자신도 하우어워스에 대한 요약 및 비판과정에서 암시했던 것처럼, 하우어워스가 윤리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를 복원시키려 했다는 점만큼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현실을 무시한 귀족적이고 순진한(naive)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교회됨을 통한 교회개혁’을 말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비판을 통해 윤리적 관심을 촉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놓는 어리석음으로 여겨지는 셈이다.<sup>6)</sup> 나아가, 교회됨을 말하는 것은 교회의 잘못을 시민적 기준에 의해 고쳐내려는 노력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냉소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하우어워스에게 질게 배어있는 긍정일변도의 관점 혹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인식으로는 교회의 잘못을 덮어주기에 급급할 뿐, 개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냉소적 지적은 매우 치명적이다. 이 부분에서, 하우어워스 자신의 교회에 대한 지나친 긍정의 문제와 더불어 하우어워스의 ‘긍정에 대한 긍정적 해석’까지도 문제시될 수 있다. 하우어워스의 관점이 교회에 대한 긍정만을 말하고 있다는 인상은 이 논한을 더욱 가속화시킬 요소일 수 있다. 하우어워스가 ‘교회란 하나님 이야기 혹은 예수 이야기대로 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받는 공동체’라고 말하지만,<sup>8)</sup> 교회의 현실은 과연 그런가?

솔직히, 한국교회는 ‘교회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있다. 공동체 경험은 부정적인 기억으로 얼룩질 뿐이고, 시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두툼한 분량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고발하는 사례집은 몇 권씩 증보판을 출판해낼 정도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냉소가 깊어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교회공동체 경험이 좋은 것만도 아니고 심지어 시민적 비난에 내몰리고 있는

6) 이상원, ‘논평’, 『복음과 윤리』 10권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2013), 65.

7) 필자가 하우어워스의 윤리를 중심으로 진행한 목회자 특강에서, 이러한 질문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우선, 필자의 딜리버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자인한다. 하지만 교회됨을 마치 교회개혁에 거스르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 이외에 하우어워스에 대해 제대로 쓴 글들을 읽어 보도록 당부하고 싶다.

8) Stanley Hauerwas, 『교회됨』, 189.

정황에서, 하우어워스는 귀를 닫아버린 채 교회에 대한 긍정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낭만적 이상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더욱 답답한 것은 하우어워스가 지속적으로 교회를 향한 긍정의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예를 들어, 교회의 갈등에 대해 하우어워스는 순진할(naive) 정도로 답답하게 말한다.

교회는 고백과 화해의 수단, 대결을 넘어 용서의 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되려는 부르심을 받았다. 폭력 아닌 방식으로 갈등을 처리할 근거가 교회에 있다.<sup>9)</sup>

왜, 이렇게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 대답으로 냉소를 자초하는 것일까? 솔직히, ‘교회됨의 냉소’를 두고, 하우어워스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하우어워스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긍정일변도의(bright-sided) 접근이 우리의 ‘발등을 찌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교회에 대한 긍정은 교회의 개혁을 저해하는 위험요소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하우어워스에 대한 비판적 해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sup>10)</sup> 예를 들어, 하우어워스가 교회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은 ‘교회-세상’의 이원론을 해소할 수 없으며, 결국 분파주의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아울러, 무저항 평화주의가 정의와 평화의 관계설정에서 정의를 거부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점, 공동체의 위계질서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강조가 역설

9) Stanley Hauerwas & William Willimon, 강봉재 역, 『십계명』 (복있는 사람, 2007), 125.

10) 이에 대해서는 특히, 김현수,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 비판적 읽기’, 『기독교사회윤리』 21집(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1)를 읽어보도록 권한다.

적으로 폭력의 논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러한 비판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로 볼 수 있겠다.

다만, 그의 문장과 행간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어찌 보면, 하우어워스의 표현들은 교회의 윤리적 개혁이라는 당위의 요청들을 담아낸 고도의 ‘반어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sup>11)</sup>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하우어워스 자신이 처한 교회적 맥락과 교회를 향한 그의 문제의식은 결코 긍정일변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하우어워스 자신이 처한 교회적 입장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 전형적인 텍사스 감리교 출신이지만, 노틀담대학에서는 가톨릭에 깊이 관심했다. 게다가, 요더의 메노나이트에 매료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성공회에 출석한다고 전해진다. 스스로 솔직하게 말한 것처럼, 교회됨을 말하는 하우어워스 자신은 정작 교회의 책임적 구성원이라기보다 일종의 노숙교인 내지는 교회난민(ecclesiastically homeless)이다.<sup>12)</sup>

물론, 하우어워스는 자신의 교회편력을 문제 삼아 자신의 교회윤리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소망한다.<sup>13)</sup> 특히, 그가 생각하는 교회란 특정지역, 특정교파의 특정모습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던 부분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출신지 텍사스를 포함한 남부의 교회가 교회의 전부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의 교회인식

11) 공공성을 요청하는 스택하우스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됨을 제시한 하우어워스가 교회를 옹호할 것처럼 기대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싶다. 오히려, 스택하우스는 교회 비판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즉 공공성 구현을 강조하는 데 집중한다. 이와 달리, 하우어워스는 교회답지 못한 현실의 교회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우어워스를 현실의 교회에 대한 일방적 옹호론자로 생각하기보다 현실의 교회에 대한 비판을 담아 교회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어법으로 읽어야 할 듯싶다.

12) Stanley Hauerwas, *Hannah's Child : A Theologian's Memoir*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0), 255.

13) Stanley Hauerwas, 『교회됨』, 23~24.



이 현실의 교회보다는 ‘당위’로서의 교회를 염두에 둔 것임을 암시하는 듯싶다.

이러한 정황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우어워스의 교회됨에 대한 언명들이 고도의 반어법일 가능성이 있다. 그가 말하는 교회됨은 현실긍정의 표현이라기보다 교회의 현실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교회의 당위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교회됨’이라는 표현 자체가 현실의 교회들이 교회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아닐까 싶다.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에 대한 냉소보다는 그의 문제의식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듯싶다. 우려스러운 것은 냉소로 인해 하우어워스가 본래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의도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일상적 착각, 즉 ‘나의 목회’와 ‘우리교회’는 복음에서 빗나가지 않았다는 자기확신이 지나쳐, 하우어워스를 통한 자성의 기회까지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염려스럽다.

무엇보다도, 하우어워스의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비판하고 몰아세우는 경향이 지나치게 강한 듯싶다. 설상가상으로, 하우어워스 자신에게서 비판의 빌미가 될 만한 요인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의 학문적 배경과 계보는 지나칠 정도로 다양하다. 마치, 다양한 사상적 지류들을 ‘종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동체주의, 덕 윤리, 그리고 평화주의와 내러티브 윤리, 그리고 본회퍼에 대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흔적들이 드러난다. 방대한 사상적 계보 탓에, 하우어워스에 대한 비판 역시 방대해질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덕 윤리를 수용하고 기독교공동체주의<sup>14)</sup>를 전개한 것을 두고 냉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솔직히, 자유주의가 승리한 현실에서

14) David Fergusson,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1.

공동체주의 윤리와 덕의 전통을 말하는 것 자체는 환영받기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덕 윤리 자체를 신학적으로 경계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덕 윤리의 기독교적 수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sup>15)</sup>

덕 윤리가 자아중심적 혹은 나르시스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비판, 덕 윤리는 귀족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기독교가 추구하는 정의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 덕 윤리보다는 기존의 다른 윤리 이론이 기독교의 도덕적 조망을 반영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비판, 그리고 덕 윤리는 ‘소종파적’이어서, 시민사회로부터의 퇴거를 부추기거나 혹은 상대주의적 색채를 지닌다는 비판 등이다.<sup>16)</sup>

특히,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를 다룰 때 ‘자폐적 교회관’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비판이라는 점에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내용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덕 윤리가 사회적 책임을 멀리하고 퇴거하려 한다는 비판, 그리고 역사적 혹은 인식론적 상대주의에 속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다.<sup>17)</sup> 다시 말해, 덕 윤리가 그 소속된 공동체보다 더 큰 사회로부터 고립되기를 추구하기 쉽다는 비판인 동시에, 덕 윤리가 상대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윤리적 절대성을 포기하는 결과에 이른다는 비판이다.

상대주의 성향에 대한 비판에는 덕 윤리학자들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덕 윤리학자들은 덕 윤리가 상대주의적 성향을 일부 지니고 있는

15) Joseph Kotva, Jr. 문시영 역, 『덕 윤리의 신학적 기초』 (공황, 2012) \*6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16) 이 부분은 필자의 글, ‘하우어워스의 교회됨의 성찰을 통해 본 기독교 덕 윤리의 의의’ <대학과 선교> 23집(한국대학선교학회, 2012)에서도 일부 다루었음을 밝혀둔다.

17) James Gustafson, ‘The Sectarian Temptation: Reflections on Theology, the Church, and the University,’ *Proceedings of Catholic Theological Society* 40(1985), 83-94.

것은 사실이지만, 강한 의미의 상대주의인 것은 아니라고 반론한다. 덕 윤리가 정직, 신실함, 실천적 지혜 등의 덕목들을 제시하는 것은, 강한 의미의 상대주의 혹은 실천적 상대주의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덕 윤리가 약한 의미의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보이는 것은 인간의 텔로스 에 관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실천적 상대주의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하기도 한다. 덕목이란 고립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과 퇴거의 위험을 말하는 비판 자체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반론하는 셈이다.<sup>18)</sup>

앞서 말한 것처럼, 소종파 문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거스타프슨 (James Gustafson)이 붙여준 이 꼬리표는 마치 주홍글씨처럼 하우어워스를 몰아세우는 상징이다. 거스타프슨의 비판보다 더 직접적으로, 스택하우스의 비판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스택하우스는 하우어워스를 새로운 소종파주의(neo-sectarianism)라고 비판하면서,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를 강하게 거부한다. 스택하우스가 보기에 하우어워스의 해법은 그리스도인을 스스로의 인식 안에 갇힌 ‘누에고치’가 되게 할 뿐이다. 혹은 하우어워스의 명저, *Resident Aliens*를 빗대어 ‘고립된 식민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sup>19)</sup>

물론, 이러한 비판에 대해 나름의 답을 줄 수는 있다. 하우어워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안하려는 라인홀드 니버 계열의 기독교사회윤리의 개념 혹은 문제의식에 던진 도전장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20)</sup>

18)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156; 223; 229; 244-55.

19) Deirdre K. Hainsworth and Scott R. Peath, eds, *Public Theology for a Global Society: Essays in Honor of Max L. Stackhouse*, (Grand Rapids: Wm. B. Eerdmanns, 2010), ‘Introduction’, x iv.

20) Stanley Hauerwas, 『교회됨』, 29.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덕 윤리가 더 큰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금지하는 소중파적 퇴거를 의도한 것이 아니다.<sup>21)</sup> 오히려 공동체적 분별을 거쳐 선택적인 참여를 제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의 사회윤리는 ‘교회됨의 사회윤리’라 부를 수 있을 듯싶다. 니버의 관점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정의를 비롯한 사회적 관심사들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를 선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면, 하우어워스의 관점은 방향전환을 요구한 것이라 하겠다.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사회윤리를 구현하려면 교회의 교회됨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까지 세속정치에 참여하려던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교회가 지닌 더 심오한 정치적 책무를 망각하게 했다는 것이다.<sup>22)</sup> 교회는 세상을 향한 사회전략을 말하는 모임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사회전략이라는 말처럼,<sup>23)</sup>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육성함으로써 세상을 향하여 바른 삶의 모습을 예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찌 보면, 하우어워스의 관점에는 미국 기독교에 대한 자기반성의 촉구가 담겨 있는 듯싶다. 특히, 마틴 마티나 니버가 말하는 사회윤리를 추종하는 것은 결국 보수주의이건 자유주의이건 간에 일종의 콘스탄틴적 타협에 속한다고 보는 셈이다. 교회의 일차적 목적을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점에서 말이다. 이러한 관점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하우어워스는 교회의 과제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평화의 공동체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충

21) Stanley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88), 11; 15-16; 84; 113-22; 183-85.

22) Stanley Hauerwas, 『교회됨』, 150.

23) Stanley Hauerwas & William Willimon,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복있는 사람, 2008), 61.

실해지는 것이라고 한다.<sup>24)</sup>

이러한 논의들은 하우어워스를 그의 문제의식에 충실하게 읽어낼 필요를 새삼 느끼게 되는 암시일 듯싶다. 냉소를 말하기 이전에, 하우어워스의 공과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덕 윤리가 윤리의 초점을 특정한 행위에서부터 그 행위의 ‘배경’으로 옮겨놓은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를테면, 성품, 인격, 공동체의 전통, 그리고 인간의 탁월성을 드러내고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진다. 덕 윤리가 도덕의 초점을 전환시키고 있는 셈이다. 덕 윤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나타난 중요한 전환은 ‘존재’와 ‘행위’에 대한 덕 윤리의 관심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우어워스는 덕 혹은 성품의 윤리가 ‘성화’의 교리에 연계된 일차적인 통찰들 중 일부를 설명해주시기도 하고 이해가능 하도록 도와준다고 확신하면서, 칼뱅과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화개념을 다루었다. 문제는 성화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관점이 덕 윤리와 기독교의 연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앞서 말했던 소종파적 위험에 대한 경계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덕 윤리의 기독교적 수용이 풀어가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하우어워스의 약점과 더불어 장점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이다. 특히, 하우어워스는 덕의 문제를 ‘교회’라는 공동체적 지평에서 이해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이점을 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덕 윤리에 대해 제기했던 공로주의 의혹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덕론에 관심하는 것을 은혜에 대한 강조를 희석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일 듯싶다. 덕론(Tugendlehre)에 초점을 맞추었던 중세의 입장

24)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6), 103.

과는 달리, 인간이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 셈이다.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는 덕 윤리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허트(Jennifer A. Herdt)는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에 담긴 덕 윤리의 기독교적 독특성 즉 내러티브와 성경, 공동체와 교회를 제대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sup>25)</sup> 허트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하우어워스가 예수 내러티브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 배경 안에서 성화의 중요성을 재발견하려 했다는 사실이다.<sup>26)</sup>

허트에 따르면, 하우어워스가 그리스도인의 덕이 내러티브, 제도, 실천 관행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함양되는 것이라고 보았던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sup>27)</sup> 덕이란 ‘개인’의 탁월한 노력 혹은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 실천이라는 맥락 안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는 뜻이다.<sup>28)</sup>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는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됨(being Christian)과 이러한 기독교적 덕의 함양을 위한 ‘덕의 학교’(school of virtue) 혹은 ‘성품의 공동체’(community of character)로서의 교회됨에 주목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요컨대, 하우어워스를 공정하게 읽어야 한다. 소중파적이고 자폐적인 관점이라는 사실에 집중포화를 퍼붓거나 신학적이고 현실적인 냉소로 일관하는 것은 하우어워스를 공정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기 쉽다. 덕의 학교 혹은 성품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됨을 위한 제언, 예수 내러티브에

25) Jennifer A. Herdt, *Putting on Virtue: The Legacy of the Splendid Vi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345.

26) David Fergusson,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59.

27) Jennifer A. Herdt, *Putting on Virtue: The Legacy of the Splendid Vi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350.

28) 이 부분은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덕 윤리』 (북코리아, 2014)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충실한 덕의 함양과 제자도의 재발견, 그리고 교회의 펀더멘탈에 대한 강조에 나타난 예배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적 목회윤리의 구현 등 교회됨을 통한 교회개혁에 관한 하우어워스의 통찰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하우어워스는 말한다.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때, 기준은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하며 본질적으로 성공과 실패는 목회에 적합하지 않은 평가어이다’, ‘삶은 예배의 리허설이다’, ‘우리의 가족이 목회자로 임직하는 순간, 그를 목회자로 존중해야 하며, 그 이유는 그가 우리의 성만찬 집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칸트 이전의 초대교회로 돌아가 기독교윤리를 말해야 한다’, ‘기독교윤리의 이상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우어워스의 언명들을 소개하는 것은 그를 잠언(箴言)의 윤리학자로 추켜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다. 공정하게 읽어야 함을 말하고 싶을 따름이다.

## 2. 한국에서의 교회됨, 가능한가?<sup>29)</sup>

하우어워스의 이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읽어야 할 것은 교회됨의 한국적 맥락이다. 한국에서의 교회됨을 통한 교회개혁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분명, 하우어워스가 한국의 정황에 꼭 들어맞는 통찰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우어워스도 자신의 성찰이 한국적 맥락에서 그대로 통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우어워스는 한국의 교회에 대한 성찰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말한다.<sup>30)</sup> 한국교회의 현실, 즉 지탄받는 교회를 넘어 ‘교회됨’에 관

29) 이 부분은 문시영, ‘복음에 합당한, 은혜윤리를 재건하라’, 〈목회와 신학〉 (2014. 9월호)를 수정, 보완하였다.

30) Stanley Hauerwas, 『교회됨』, 9.

한 하우어워스의 문제의식을 한국적 맥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말해야 할 듯싶다.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윤리개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문해보자.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why be moral?)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상정하고 도덕의 근거와 이유를 묻는 질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이해, 즉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로부터 출발하되 그것을 넘어 복음적 정체성을 지닌 도덕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sup>31)</sup> 이러한 뜻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가능하다. ‘왜,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특히,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할 듯싶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왜 도덕적이어야 하며 어떤 윤리를 추구해야 하는가?’

하우어워스를 참고해보자. 칸트적 영향으로 구분되기 시작한 ‘윤리’라는 분과구분이 없었던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삶과 행위의 문제를 규정했을까? 좁혀서 말한다면, ‘기독교윤리’라는 이름의 근대적 학문이 생겨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행위의 문제를 어떻게 규정했을까?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예수는 누구이신가?’에 주목했고 ‘제자도’를 강조했다. 이 시기에는 예수의 증인됨이 중요했고, 박해가 다가왔을 때 ‘순교’는 증인됨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sup>32)</sup> 특히, 교회는 성만찬을 비롯한 예전을 통해 예수의 증인됨을 위한

31)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㉔, ㉕를 구분하는 것은 이원론적 접근 혹은 ㉔에 대한 폄해를 의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민적 최소도덕이 필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예를 들어, 목회자납세는 굳이 비난받을 필요 없이 조세제도를 통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그 외 시민성에 기초한 도덕적 책무를 실천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다만, 그리스도인에게 ㉔를 기초로 ㉕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함을 강조하려는 취지이다. 하우어워스를 응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윤리기준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됨, 즉 ‘복음의 증인’ 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셈이다.

32) Stanley Hauerwas and Samuel Wells, 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2006), 41.



방편들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의 윤리에 관한 질문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야만 종합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듯싶다. ㉔도덕적 존재로서의 기본, 혹은 칸트적 의미의 ‘최소도덕’조차도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㉕칸트 이전, 특히 초대교회가 지녔던 윤리적 이상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인됨’(being Christian)과 교회됨(being Church)을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선, 교회를 향한 시민적 지탄은 ㉕보다 ㉔, 즉 칸트적 의미의 최소도덕을 구비하지 못함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강도 높은 도덕적 개선을 추구해야 마땅하다. 변명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궁색할 따름이다. 문제는, ㉔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㉕에 대한 자성을 놓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하우어워스를 응용하자면, ㉕의 자성이야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윤리회복의 준거라 할 수 있겠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됨’, ‘교회다운 교회됨’이야말로 은혜(Gabe)에 의해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충실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과제(Aufgabe)이다. 하우어워스를 대입하자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명은 복음에 충실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 비전은 ‘복음의 증인’(witness of Gospel)이 되는 것이다.<sup>33)</sup>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됨과 교회됨을 추구하고 있는지 자성과 자정이 절실한 이유가 이것이다.

놀랍게도,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했던 때가 있었다. 한국교회사의 사료들은,<sup>34)</sup> 충분한 예증이 된다. 선교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 도덕적이고 영적 각성을 체험했다. 복음의 빛을 받은 후, 그동안

33) Stanley Hauerwas, 『교회됨』, 30.

34) 여기에 사용된 내용들은 <국민일보>에 연재된 ‘이야기 한국교회사’와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를 참고한 것임을 밝혀둔다.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일들이 마땅히 회개해야 할 죄라는 점을 깨달았고 도덕적 변화를 추구했다. 이 과정에 나타난 도덕적 변화와 실천의 모습들은 크게 두 가지 흐름, 즉 도덕적 금지사항과 도덕적 권장사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도덕적 금지사항은 복음 이전의 옛 생활에 대한 청산 혹은 극복과제들을 말한다. 축첩, 여성차별, 신분차별, 도박, 음주, 흡연 및 노동천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권장사항으로는 도덕적 모범이 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적 윤리로서의 덕을 세움, 즉 ‘건덕’(建德)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도덕적 금지사항 혹은 극복과제와 관련된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도박금지, 금주금연, 축첩금지, 신분차별의 극복, 노동천시사상의 극복 등 여러 분야의 생활문화 개혁을 통한 영적, 도덕적 개혁으로 이어졌다. 특히, 축첩문제는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평가되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축첩을 하고 있던 경우, 세례와 입교를 위해 반드시 결단하고 도덕적 변화를 보여주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교초기 한국교회는 사회윤리의 변혁을 추구했다. 예를 들어, 백정해방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차별 극복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들은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나아가, 노동천시사상의 극복도 생각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건전한 노동관의 모델로 목수 요셉을 상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수의 아들로써 설명했던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 역시 문화변혁의 기록들이다.

한 마디로, 한국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복음에 기초한 영적 체험에 따른 도덕적 결단과 변화가 반드시 요구된 셈이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를 보여줄 결단이 필요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었으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됨의 중요성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공유되어 있었던 셈이다.

도덕적 금지사항과 함께, 도덕적 권장사항이 있었다. ‘건덕’의 전통이 그것이다. 한국교회에 덕의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져왔으며, 여전히 성경 번역어에 ‘덕스럽게 하자’는 표현과 ‘건덕’의 권면이 이어져오고 있다. ‘은혜롭게 하자’, ‘덕스럽게 하자’, 혹은 ‘교회의 건덕을 위해’ 등등의 명분으로 자행되어온 도덕부재의 안타까움이 한국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가로막아 온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왜곡을 자행한 것이 문제이지 건덕이 전통 자체는 긍정적 의의를 지닌다.

흥미로운 것은, ‘덕을 세우다’의 원어 ‘오이코도메’가 덕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아레테’의 번역어가 되는 것이 맞다. ‘오이코도메’가 ‘세우다’(edify, build up 또는 benefit, strengthen)의 뜻을 가진 것은 맞지만, 굳이 ‘덕’을 개입시킬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덕을 세우다’로 의역한 것은 공동체주의 윤리가 배경이 되었던 듯싶다. 여기에는 유교적 배경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더 강력하게 작용했을 듯싶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닌 덕 전통은 기독교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유교적 배경과 밀접하다. 특히 유교적 도덕관, 즉 ‘도를 닦고 덕을 쌓자’(cultivate tao and inculcate virtue)는 관점이 강하게 작용했을 듯싶다.<sup>35)</sup> 성경번역의 배경에 이러한 요소가 반영되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긍정적인 기여와 부정적인 저해의 양면성을 지닌다. 긍정적으로 보면, 공동체를 위한 깊은 관심과 열정적 헌신이라는 요소가 한국교회를 위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교회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35) 황경식, ‘왜 다시 덕 윤리가 문제되는가?’ 「철학」 95집 (한국철학회, 2008), 220~221.

공동체의 성장과 유지 및 운영을 위한 공동참여와 공동책임이라는 윤리적 과제가 있음을 강조해준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존중하며 교회 안의 여러 그룹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한국교회의 긍정적 에너지일 수 있겠다.

유교적 영향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크다. 성경의 번역어로 사용된 ‘덕’을 유가철학의 그것과 혼동하거나 혼합시킬 위험이 있다. 교회 안에 나타나는 고질적인 권위주의와 위계질서에 대한 강조 등은 이러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난 왜곡일 수 있다. 혹은 교회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 내지는 허물을 덮어준다는 명분으로 교회지도자들과 공동체구성원들의 죄악을 눈감아주고 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이 생겨나 교회의 진정한 윤리적 성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하우어워스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자. 선교초기 한국교회의 도덕적 금지와 권장에서 유의할 것은 그 준거가 아시아적 덕 윤리를 넘어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교회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어온 표현, 즉 덕을 세우고 덕스럽게 하는 것은 유교적 덕 윤리의 계승과 같은 것일 수 없다. 하우어워스가 강조했던 것처럼, 내러티브와 덕의 종류가 중요하다. 하우어워스가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덕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됨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됨을 강조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교회됨의 기준이 아시아의 내러티브와 다른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더불어, 하우어워스의 관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자성과 자정이다. 하우어워스가 교회됨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지만 구체적 실천전략에서 아쉬움 또한 크다. 이를테면, ‘덕스럽지 못한’ 경우에 대한 권징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덕스럽게 하자’는 권면을 ‘은혜롭게 하자’는 뜻으로

옳기는 과정에서 ‘은혜만능주의’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은혜만능이 아닌 은혜중심의 윤리를 세우기 위하여, 권징을 위한 권징을 넘어 공동체의 윤리적 성숙을 위한 자성과 자정이 절실하다.<sup>36)</sup> 솔직히, 권징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정능력이 바닥나버린’ 것으로 평가되는 교회의 현실이 문제일 듯싶다.

다른 하나는 공공성 함양이다. 한국교회가 은혜를 사적 감성의 차원으로 한정지어 삶의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삼지 못한 채, ‘은혜만능주의’로 왜곡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앙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를 초래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점에서, 하우어워스의 문제의식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신앙의 사사화 극복을 강조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의 문제의식에 관심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의 공공신학에 대한 신학적 관심이 절실하다. 스택하우스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신앙의 공공성 혹은 공적 신앙(public faith)을 구현하기 위한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의 영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은혜만능주의로 어긋나버린 한국적 신앙의 사사화를 극복하고 시민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III. 나오는 말

‘한국교회, 가능한가?’ 이 글은 교회의 윤리적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길, 즉 ‘윤리적 via positiva’를 모색하였다. 특히, 한국교회 선교초기의 윤리적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이 하우어워스가 말한 교회됨의 윤리를 구현한 선례(先例)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처한 윤리적 위기

36) 이에 대해서는 문시영, ‘윤리적 자정의 관점에서 하우어워스 읽기’ 「기독교사회윤리」 25집(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3)을 참고할 수 있겠다.

를 극복하기 위해 복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됨’과 복음적인 ‘교회됨’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치,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와도 같은 오늘의 교회를 개혁하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한국적 맥락에서, 교회는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윤리부재의 문제는 아무리 변명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됨을 통한 교회개혁이 유일무이한 해답인 것은 분명 아니다. 문제를 풀어갈 해법의 하나이다. 교회됨의 자성을 바탕으로 교회됨의 실천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됨의 윤리는 한국 교회됨을 위해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해법의 하나이다.

## 참고문헌

- 김현수.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 비판적 읽기', 『기독교사회윤리』 21집(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1)
- 문시영. 『교회됨의 윤리』, 북코리아, 2013.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와 덕 윤리』, 북코리아, 2014.
- 이상원. '논평', 『복음과 윤리』 10권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2013)
- 황경식. '왜 다시 덕 윤리가 문제되는가?' 『철학』 95집 (한국철학회, 2008)
- Collier, Charles M. ed., *The Difference Christ Makes: Celebrating the Life, Work, and Friendship of Stanley Hauerwas*, Eugene: CASCADE books, 2015.
- Fergusson, David.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8.
- Gustafson, James. 'The Sectarian Temptation: Reflections on Theology, the Church, and the University,' *Proceedings of Catholic Theological Society* 40(1985)
- Hainsworth, Deirdre K., and Peath, Scott R., eds, *Public Theology for a Global Society: Essays in Honor of Max L. Stackhouse*,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10.
- Hauerwas, Stanley. *Christian Existence Today,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8.
- \_\_\_\_\_.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6.
- \_\_\_\_\_. and Willimon, William, 강봉재 역, 『십계명』 복있는 사람, 2007.
- \_\_\_\_\_. and Willimon, William,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복있는 사람, 2008.
- \_\_\_\_\_. 문시영 역, 『교회됨』 북 코리아, 2010.
- \_\_\_\_\_. *Hannah's Child : A Theologian's Memoir*,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0.

Kotva, Jr., Joseph. 문시영 역, 『덕 윤리의 신학적 기초』 공황, 2012.

Ma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Herd, Jennifer A., *Putting on Virtue: The Legacy of the Splendid Vi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논문투고일: 2015. 02. 19.

심사개시일: 2015. 03. 13.

게재확정일: 2014. 04. 11.



---

• 국 문 초 록 •

---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 혹은 교회됨의 윤리에 대한 반응은 냉소적이다. 구체적으로, 신학적 냉소와 실천적 냉소가 나타난다. 먼저, 신학적 냉소는 ‘소중파적 퇴거’의 위험 혹은 ‘자폐적 교회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더구나 칼뱅주의가 주류인 한국에서 하우어워스의 윤리는 칼뱅에 미달하는 것으로 내몰리기 쉽다. 다른 하나, 실천적 냉소 역시 설득력이 크다. 하우어워스의 접근법은 시대착오적 이어서, 교회비판을 통해 윤리적 관심을 촉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냉소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1)교회됨의 윤리에 관한 공정한 읽기: 하우어워스의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하우어워스는 덕의 문제를 ‘교회’라는 공동체적 지평에서 이해하게 해준다. 하우어워스는 예수 내러티브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 배경 안에서 성화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해준다. 또한 제자도의 재발견, 교회의 편더멘탈에 대한 강조, 그리고 예배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적 목회윤리의 구현 등 하우어워스의 통찰을 간과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읽어야 한다.

2)교회됨의 윤리에 관한 한국적 읽기: 한국에서의 교회됨의 가능성에 관해서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 비전은 ‘복음의 증인’(witness of Gospel)이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했던 때가 있었다. 특히, 선교초기 한국교회의 도덕적 금지와 권장의 기준이 아시아의 내러티브가 아닌 예수 내러티브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우어워스가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덕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됨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됨을 강조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더불어, 하우어워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사사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신학의 문제의식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하우어워스의 교회됨의 윤리와 함께 공공성의 윤리가 상호양립의 관계에서 보완될 때, 교회개혁의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교회윤리, 교회됨, 성화, 예수 내러티브, 하우어워스, 한국교회.

---